

경기도 여성노인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박영수 · 최인숙*

한국교원대학교 · 공주대학교*

A Study of Sex-related Problems of Old Women in Kyeonggi Province, Korea

Park, Young-Soo · Choi, In-Soo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exual discourse has been frequent, but the subjects of it have been limited to the young, and the sex of women and that of the old people, until now, have been overlooked. According to the data in 2,000 of the Korea Statistic Service, the older-than-sixty-five-year people consist of 37.4% men and 62.6% women. Of them, the older-than-seventy-year people consist of 33.8% men and 66.2% women. The data show the fact that as the age of the old people is higher, the number of old women is enlarging. Paying attention to the above-mentioned tendenc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bout the aspects of the sexual consciousness of old women.

The purpose of study was focused, through the survey, on discovering the ways of old women's recognition about their sexual desire, and on presenting basic data to developing the programs which could 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discovery.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it was to prevent the sexual desire's distortion and suppression of old women, if they had any, and to present basic data to developing the programs which could convert their recognition of sex.

The objects of the survey were the sample group of 301 people inhabiting in Hwaseong City, Seongnam City, Yongin City, and Suwon City, chosen out of 375,298 old women of 614,316 older-than-sixty-five-year people in Kyeonggi Province (Kyeonggi Province homepage, 2002).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s' interviews in the fields of old men's resting house, churches, temples, old men's niversities and so like, from September 19th to September 31th in 2003. The questionnaires as volunteers were taught the prior education, being prepared for the survey about old women's sexual consciousness.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composed of the understanding of old women, the ways of questionnairing, and the items of questionnaire.

The outcomes of the survey are following;

First, concerning general items, the old women of the sample group answered that they felt greatly the difficulties of health(36.5%), economy(12.0%), and loneliness(11.3%) in turn. The 48.2% of them answered that they were healthy, but the 62.3% answered that they were suffering various illnesses. The 24.4% answered they were economically rich, and the 23.9% answered they were working. The 53.5% were living alone due to divorce or death. The 71.1% had been living for more than ten years. The 83.1% believed in their own religion.

Second, the 43.8% of the sample group admitted the necessity of a heterosexual friend and sexuality. The 39.0% felt sexual desire, and the 33.9% were experiencing sexuality. As the obstructing factors in performing sexuality, the objects of sample group pointed out shamefulness or morality(28.7%), anxiety that such deeds might afflict their health or the problem of health itself(20.2%), weakening of sexual potency(16.9%). This outcome shows that they have ambiguous notions about their sexual alienation and manner.

Third, the 33.7% of the sample group admitted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and of those that admitted them, the 85.2% said that they would take part in sexual education if it were held. It shows that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need be fulfill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two important suggestions can be drawn:

First, systematic sexu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old people's developing steps containing their rights of health and sex. Also those should be educated through kindergartens, primary, middle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econd,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on prospective old people and present old people should be perform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이끌어져 나오는 성에 대한 관심의 주체는 아직까지 젊은 층에만 국한되어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은 76.53 세로 그 중에서 남자는 72.84세, 여자는 80.01세로 집계되었다. 또한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남성노인은 37.4%, 여성노인은 62.6%이며,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이 33.8%, 여성 노인이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계했다(통계청, 2001).

이렇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과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미루어볼 때, 핵가족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홀로 남은 노인들이 사회적 참여로 이러한 문제는 평균연령이 연장되면서 혼자 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인문제 가운데 하나인 고독과 외로움을 해

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노인의 성생활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성생활은 결코 신체적 성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노인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포함한 원만한 성생활은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 방향에서 해소시켜주며 직업이나 일상적 역할에서 은퇴로 인해 비롯된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충해 준다고 한다(임춘식, 2001).

최근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전주 영화제'에 출품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실제 인물인 70대의 배우자와 사별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70대 커플의 파격적인(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는 '노인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실은 그들의 본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이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렇듯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제는 '노인의 성'에 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인의 성'에 관해서는 다루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 그리고 '노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성'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무관심 혹은 배타성으로 인하여 여성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나 실태는 현실로 잘 드러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소외된 노인 여성의 성문제에 대하여 실태의 규명과 아울러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조사는 여성 노인의 성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여성노인의 왜곡되고 억압된 성적 욕구를 발견하고, 예방 및 인식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노인문제 중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여성노인 성의식 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일반적 사항, 생활실태, 성생활 실태를 조사 연구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14,316명 중 남성노인 239,018 명, 여성노인 375,298명중 여성노인 375,298명(경기도 홈페이지, 2002)을 모집단으로 하여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거주 노인 30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원은 여성 자원봉사자로 2회에 걸친 여성노인 성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은 여성노인의 이해,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19일부터 9월 31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375,298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를 중심으로 노인정, 교회, 사찰, 노인대학 등을 여성자원 봉사자로 하여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는 여성노인의 성의식 실태에 관련된 최향숙(2002)의 선행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

<표 II-1> 조사내용

번 인	문 항 내 용
일반적 사항	연령, 학력, 종교, 현재 직업, 보호구분, 주거상태, 주거형태, 결혼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혼자된 기간, 이성친구 필요성
생활실태	동거인, 건강상태, 질병유무와 질병, 여성호르몬 치료받은 경험, 음주정도, 흡연정도, 운동정도, 일상생활의 도움정도, 경제력, 돈벌이가 되는 일 하는 여부와 이유, 하루 일과, 어려움이나 문제
성생활 실태	성에 대한 느낌, 성생활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 원인, 성생활의 필요에 대한 견해, 젊은 시절 성생활 경험, 현재 성생활, 최근 성적욕구, 성적욕구 해결방법, 최근 한 달간 성관계 경험, 성관계 대상자,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성의식	성생활의 필요에 대한 견해, 성에 대한 관심, 성적욕구와 능력 정도, 성병, 성생활과 건강, 성생활에 상의 대상, 남성노인의 매력 유무, 성생활과 관련한 신체적 제한, 성기구 정력제의 사용 욕구, 배우가 없을 시 성생활 욕구, 성생활 욕구, 성생활이 삶의 활력소 견해, 배우자 없는 경우 성생활 어려움, 폐경이후의 성생활, 성적만족을 위해 젊은 상대 여부, 자위의 필요성, 성에 관심을 갖는 것과 체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성적활동과 교육, 정서적 교류 필요성, 성적욕구에 대한 지적 욕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잠자리 제공 견해

완하여 2003년 8월 15일 0시 노인정의 여성 노인과 0시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 산정법에 따라 각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생활 실태, 성생활실태, 성의식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II-1>과 같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인문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분석대상 (이하 '조사대상자'로

표시)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 시·군별로 할당하여 추출된 301명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III-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47.8%(144명), 70대 32.6%(9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80.4%(242명)가 60대에서 70대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약 71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이 32.8%(99명), 초졸 이하가 31.8%(96명)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가 12.9%(39명), 고졸 이하가 16.3%(50명), 대졸이상이 5.3%(16명)로 나타났다. 기타로 서당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67.1%(202명)이 초등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3.9%(102명), 천주교 27.3%(82명), 불교 21.9%(66명)로 전체적으로 84.2%의 조사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참조>).

조사대상자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76.7%(231명)이며 일용직 6.1%(18명), 서비스 판

<표 III-1>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연령대	60대	144	47.8
	70대	98	32.6
	80대	54	17.9
	90대 이상	5	1.7
	계	301	100.0
학력	무학	99	32.8
	초졸	96	31.8
	중졸	39	12.9
	고졸	50	16.6
	대졸	16	5.3
	기타	1	0.3
계	301	100.0	
종교	천주교	82	27.3
	기독교	102	33.9
	불교	66	21.9
	종교 없음	43	14.2
	기타	8	2.7
계	301	100.0	

<표 III-2>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직업	무직	231	76.7
	취로사업	5	1.6
	사무, 관리직	4	1.3
	서비스, 판매업	17	5.7
	일용직	18	6.1
	부업, 소일, 임시직	11	3.7
	기타	15	4.9
	계	301	100.0
보호구분	수급권자	23	7.6
	조건부수급권자	7	2.4
	해당 없음	243	80.7
	기타	28	9.3
계	301	100.0	
주거상태	자가	193	64.1
	전세	43	14.3
	월세	8	2.7
	영구임대	37	12.3
	기타	20	6.6
계	301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53	17.7
	다세대, 빌라	46	15.3
	아파트	194	64.7
	기타	8	2.7
계	301	100.0	

매직 5.7%(17명), 부업, 소일, 임시직 4.9%(11명), 취로사업 1.7%(5명)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구분은 해당 없음이 85.6%(243명)이고, 수급권자 7.6%(23명), 기타 3.9%(15명), 조건부 수급권자 2.5%(7명)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는 66.3%(193명)명이 자가로 응답했으며, 전세 14.8%(43명), 영구임대 12.7%(37명), 월세 2.7%(8명)순으로 응답을 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4.7%(194명)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17.7%(53명), 다세대, 빌라가 15.3%(46명)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는 사별이 46.9%(139명)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은 조금 낮게 41.3%(125명)로 나타났다. 이혼이 6.6%(20명), 재혼이 3.0%(9명), 동거가 1.0%(3명)로 나타났다.

<표 III-3>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결혼상태	기혼	125	41.3
	재혼	9	3.0
	동거	3	1.0
	이혼	20	6.6
	사별	139	46.9
기타	10	1.0	
계	301	100.0	
이성친구의 필요성	필요하다.	56	18.6
	있으면 좋다.	76	25.2
	필요없다.	169	56.1
계	301	100.0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1	15.3
	보통이다.	102	74.5
	만족하지 않는다.	14	10.2
계	137	100.0	
혼자된 기간	10년미만	46	28.9
	10년이상 20년미만	50	31.4
	20년이상 30년미만	29	18.2
	30년이상	34	21.5
계	159	100.0	

이성친구의 필요성은 필요없다가 57.9%로 있으면 좋겠다 26.0%, 필요하다가 16.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74.5%(102명)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가 15.3%(21명), 만족하지 않는다는 10.2%(14명)로 나타났다.

혼자된 기간은 10년이상 20년미만이 31.4.8%(50명)로 가장 높았으며, 10년미만이 28.9%(46명), 20년 이상 30년미만이 21.5%(34명)로 나타났고, 30년 이상도 2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관련 사항

1) 동거 형태

조사대상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가 29.0%(88명), 노부부 둘만 산다가 21.1%(64명), 미혼자녀와 함께 산다가 20.8%(63명), 혼자생활이 18.2%(55명)로 나타났으며, 결혼한 딸 내외와 함께 산다가 8.6%(26명) 그리고, 손주와 함께 산다, 이혼한 아들과 산다 등 기타가 1.7%(5명)로 나타났다.

<표 III-4> 동거인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혼자 생활	55	18.2
노부부 둘만	64	21.1
미혼 자녀	63	20.8
결혼한 아들 내외	88	29.0
결혼한 딸 내외	26	8.6
기타	5	1.7
계	301	100.0

2)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다가 38.9%(11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다가 24.9%(75명), 보통이다가 21.9%(66명), 매우 건강하다가 9.3%(28명), 전혀 건강하지 않다 5.0%(15명)로 나타나 48.2%(145명)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했다.

<표 III-5> 건강상태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매우 건강하다.	28	9.3
건강한 편이다.	117	38.9
보통이다.	66	21.9
건강하지 않다.	75	24.9
전혀 건강하지 않다.	15	5.0
계	301	100.0

3) 질병

(1) 질병의 유무

조사대상자의 현재 질병이 유무의 상태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62.3%(188명)로 없다는 37.7%(113명)보다 높게 나타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 질병의 유무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188	62.3
없다.	113	37.7
계	301	100.0

<표 III-7> 질병의 종류

	빈도	백분율		
		반응 백분율	사례 백분율	
질병의 종류	고, 저혈압	70	16.4	37.4
	뇌졸중	11	2.6	5.9
	심장질환	22	5.1	11.8
	위장질환	20	4.7	10.7
	간질환	1	.2	.5
	신장질환	13	3.0	7.0
	당뇨병	37	8.6	19.8
	호흡기질환	21	4.9	11.2
	관절염	100	23.4	53.5
	백내장 등 안질환	19	4.4	10.2
	청각질환	21	4.9	11.2
	치과질환	33	7.7	17.6
	정신과적 질환	5	1.2	2.7
좌골신경통	35	8.2	18.7	
기타	20	4.7	10.7	
계	428	100.0	228.9	

(2) 질병의 종류

질병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냐라는 질문에 관절염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 저혈압이 16.4%, 당뇨병 8.6%, 좌골신경통이 8.2%, 치과질환 7.7%, 심장질환 5.1%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질환 4.9%, 위장질환 4.7%, 백내장 등 안질환 4.4%, 신장질환 3.0%, 뇌졸중 2.6% 정신과적 질환 1.2%, 간질환 0.2%로 5% 미만을 나타내면서 뒤를 이었다.

전체를 보면 187명이 총 428개의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228.9%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골다공증, 허리통증 등이 있었다.

(3) 여성호르몬 치료 경험

조사대상자의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없다가 67.1%(202명)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과거에 받았으나 현재 안받는다가 17.3%(52명), 있다가 13.0%, 현재 받고 있다가 2.7%(8명)로 나타났다.

<표 III-8> 여성호르몬 치료 경험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있다.	39	13.0
현재 받고 있다.	8	2.7
과거에 받았으나 현재 안 받는다.	52	17.3
없다.	202	67.1
계	301	100.0

(4) 음주 정도

조사대상자의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73.2%가 안한다고 응답했고, 주1회가 17.4%, 주 2~3회가 6.4%, 매일이 3.0%로 나타나 음주를 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음주 정도

음주정도	빈도 (명)	백분율 (%)
매일	12	4.0
주 2~3회	19	6.4
주 1회	52	17.2
안 함	218	72.4
계	301	100.0

(5) 흡연 정도

조사대상자의 흡연 정도를 살펴보면, 피우지 않는다가 88.4%, 피운다가 11.6%로 나타나 대다수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경우 하루에 2~3개피를 피운다가 8.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하루에 반 갑을 피운다가 2.6%로 나타났다.

<표 II-10> 흡연 정도

흡연 정도	빈도 (명)	백분율 (%)
하루 반갑 이상	8	2.6
하루 2~3개피	27	8.9
안 함	267	88.4
계	301	100.0

(6) 운동 정도

조사대상자의 운동 정도를 살펴보면, 매일 한다가 36.0(10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한다가 35.6%(108명), 주 2~3회가 19.5%(59명), 주 4~5회가 8.9%(27명)로 나타나서, 64.1%(193명)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운동 정도

	빈도 (명)	백분율 (%)
매일	107	36.0
주 4~5회	27	8.9
주 2~3회	59	19.5
안 함	108	35.6
계	301	100.0

(7) 일상생활 도움 정도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혼자 거동한다가 85.7%(2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장구를 이용하여 혼자 거동한다가 8.0%(24명),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가 4.3%(13명),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가 2.0%(6명)로 나타나, 93.3%(281명)가 혼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일상생활 도움 정도

일상생활정도	빈 도(명)	백분율(%)
혼자 거동	257	85.7
보장구이용 혼자 거동	24	8.0
도움 조금 필요	13	4.3
도움 항상 필요	6	2.0
계	301	100.0

(8) 경제 정도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정도를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넉넉하다가 21.1%, 어렵다가 20.5%, 매우 어렵다가 7.6%, 매우 넉넉하다가 3.3%로 나타났다.

<표 II-13> 경제 정도

경제 정도	빈 도	백분율
매우 넉넉하다.	10	3.3
넉넉하다.	64	21.1
그저 그렇다.	144	47.5
어렵다.	64	21.2
매우 어렵다.	23	7.6
계	301	100.0

(9) 직업 유무

현재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76.1%(229명)가 하지 않는다, 23.9%(72명)가 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조사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직업 유무

직업유무	빈 도(명)	백분율(%)
하고 있다.	72	23.9
하지 않는다.	229	76.1
계	301	100.0

(가)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43.0%(3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을 하고 싶어

서 20.8%(15명), 용돈 마련을 위해서 9.7%(7명),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서 6.9%(5명)로 나타났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4.1%(3명),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1%(3명)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기타로는 계속해왔기 때문에, 남편일 함께 도와줌, 사업관리, 손주돌봄, 어쩔 수 없어서, 자녀 돕기, 학비마련 등이 있었다.

<표 II-15>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빈도	백분율
생활비 벌기 위해	31	43.0
용돈 마련을 위해	7	9.7
건강 유지를 위해	3	4.1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서	5	6.9
시간을 보내기 위해	3	4.1
일이 하고 싶어서	15	20.8
기타	8	11.1
계	72	100.0

(나)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49.9%(114명),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8%(59명)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뒤이어, 생활이 어렵지 않아서 9.6%(22명),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5.6%(13명), 가족들이 반대해서 5.2%(12명), 일하기 싫어서 3.9%(9명)로 나타났다. 기타로 나이가 들어서, 살림 때문에, 손주 돌봄, 시각장애 등이 있다.

<표 III-16>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명)	백분율 (%)
건강이 좋지 않아서	59	25.8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13	5.6
가족들이 반대해서	12	5.2
생활이 어렵지 않아서	22	9.6
일하기 싫어서	9	3.9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114	49.9
계	229	100.0

(10) 하루를 보내는 방법

조사대상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20.9% (63명)가 노인정에 간다고 응답했으며, 돈이 되는 일을 한다가 16.9%(51명), 종교활동을 한다가 15.9%(48명), 취미활동을 한다가 9.6%(29명), 집안일을 한다가 9.9%(30명)로 나타났고, 특별히 하는 일 없다가 8.9%(27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복지관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 이성친구를 만난다, 노인주간보호소에 다닌다, 봉사활동을 한다 등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표 III-17> 하루를 보내는 방법

하루를 보내는 방법	빈도 (명)	백분율 (%)
돈이 되는 일을 한다.	51	16.9
이성친구를 만난다.	12	4.0
노인정에 나간다.	63	20.9
집안 일을 한다.	30	9.9
취미활동을 한다.	29	9.6
종교활동을 한다.	48	15.9
봉사활동을 한다.	15	4.9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3	7.6
특별히 하는 일 없다.	27	8.9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	3	0.9
계	301	100.0

(11) 어려움

조사대상자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건강상의 문제가 36.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16.9%,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12.0%, 외로움과 고독감이 11.3%,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약화와 권위상실이 9.6%,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이 6.5%, 성생활의 어려움 3.0%, 일상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1.3%로 나타났고, 가족간의 갈등, 가족역할의 어려움에 1.0%가 응답했다. 2순위에 있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약화, 권위상실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 13.0%,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12.3%, 외로움과 고독감이 11.5%, 건강상의 문제가 10.8%,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과 가족역할의 어려움이 각각 8.6%, 가족간의 갈등이 6.7%, 성생활의 어려움 5.6%,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4.5%로 나타났다. 종합점수를 살펴보면, 건강상의 문제가 2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37점,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105점, 외로움과 고독감이 99점,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약화와 권위상실이 97점, 여가프로그램의 부족이 61점, 성생활의 어려움이 33점, 가족역할의 어려움이 32점, 가족간의 갈등이 27점,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20점에 나타난 것

<표 III-18> 어려움

	1순위		2순위		종합 점수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외로움, 고독감	34	11.3	31	11.5	99
지위약화, 권위상실	29	9.6	39	14.5	97
성생활의 어려움	9	3.0	15	5.6	33
건강상의 문제	110	36.5	29	10.8	249
경제적 어려움	51	16.9	35	13.0	137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4	1.3	12	4.5	20
여가 프로그램 부족	19	6.3	23	8.6	61
가족간의 갈등	3	1.0	18	6.7	27
가족역할의 어려움	3	1.0	23	8.6	32
별로 어려움이 없다.	36	12.0	33	12.3	105
기타	3	1.0	11	4.1	17
계	301	100.0	269	100.0	

으로 보아 건강상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생활 실태

1) 성에 대한 느낌

조사대상자의 성에 대한 느낌에 살펴보면 아무 느낌 없다가 71.4%(215명), 좋고 흥분된다가 20.3%(61명), 생각은 있지만 참는다가 8.3%(2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성에 대한 느낌

성에 대한 느낌	빈도	백분율
아무 느낌 없다.	215	71.4
생각은 있지만 참는다.	25	8.3
좋고 흥분된다.	61	20.3
계	301	100.0

2) 성생활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의 원인

성생활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1순위로는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 생각해서가 31.9%로 가장 높았고, 필요없다고 생각해서가 15.5%, 상대가 없어서 18.9%,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대방이 꺼려해서 7.6%, 자녀에게 눈치가 보여서 4.3%, 공간이 없어서가 0.9%를 나타냈다. 그리고 2순위로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서가 23.8%로

<표 III-20> 성생활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의 원인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건강이 좋지 않아서	47	15.6	34	11.9
상대가 없어서	57	18.9	16	5.3
상대방이 꺼려해서	23	7.6	18	5.9
공간이 없어서	3	0.9	44	14.4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 생각해서	96	31.9	41	13.6
자녀에게 눈치가 보여서	13	4.3	24	7.9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46	15.5	72	23.8
무응답	16	5.3	52	17.2
계	301	100.0	301	100.0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 생각해서가 11.9%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1.9%, 자녀에게 눈치가 보여서가 7.9% 그 뒤를 이었고, 상대가 없어서 5.3% 상대방이 꺼려해서가 7.2%, 공간이 없어서가 4.4%를 나타냈다. 종합점수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 생각해서가 2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성생활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3) 성생활 필요성

성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필요하다가 46.5%(140명), 필요하지 않다가 35.5%(107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9.3%(28명), 매우 필요하다가 8.6%(26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5.1%(166명)이 성생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III-21> 성생활 필요성

성생활의 필요성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필요하다.	26	8.6
필요하다.	140	46.5
필요하지 않다.	107	35.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9.3
계	301	100.0

4) 젊은 시절 성생활 횟수

젊었을 적의 성생활 경험을 살펴보면, 주1회 이상이 34.3%(1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

<표 III-22> 젊은 시절 성생활 횟수

젊은 시절 성생활 횟수	빈도 (명)	백분율 (%)
주 4회 이상	22	7.3
주 2회 이상	89	29.7
주 1회 이상	103	34.3
월 2회 이상	51	17.0
2~3개월에 1회	29	9.7
무응답	7	2.3
계	301	100.0

회 이상이 29.7%(89명), 주4회 이상이 7.3%(22명), 월2회 이상이 17.0%(51명), 2~3개월에 1회가 9.7%(29명), 전혀 없었다가 2.3%(7명)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71.0%(214명)가 주1회 이상의 성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5) 현재 성생활 유무

조사대상자의 현재 성생활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 가 65.6%(86명)으로 하고 있다는 34.4%(4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현재 성생활 유무

현재 성생활 유무	빈도	백분율
하고 있다.	102	33.9
하지 않는다.	199	65.6
계	301	100.0

(1) 현재 성생활 횟수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성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월1회가 25.9%(77명)로 가장 많았고, 월2회가 23.9%(72), 월3회가 12.6%(38명), 월4회가 24.2%(73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2~3개월별 성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2.9%(9명)가 2~3개월에 1~2회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현재 성생활 횟수

현재 성생활 횟수/월	빈도(명)	백분율(%)
성생활 횟수		
1회	77	25.6
2회	72	23.9
3회	38	12.6
4회	73	24.3
5회	4	1.3
8회	5	1.7
9회	3	1.0
10회 이상	10	3.3
무응답	10	6.3
계	301	100.0

(2) 마지막 성생활 연령대

몇 세까지 성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면, 60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가 33.9%, 40대가 14.5%, 30대가 10.9%, 70대 이상이 3.6%, 30대 미만이 1.2%로 나타나 50~60대가 전체의 6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마지막 성생활 연령대

마지막 성생활 연령대	빈도(명)	백분율(%)
20~29	2	1.2
30~39	18	10.9
40~49	24	14.5
50~59	56	33.9
60~69	56	35.8
70대이상	6	3.6
계	165	100.0

6) 현재 성적 욕구 정도

조사대상자의 최근 성적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적욕구가 없다가 57.7%(172명),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다가 13.8%(41명), 정신적으로 교체하고 싶다가 13.1%(39명),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가 12.1%(36명)로 나타났고, 기타로는 몸이 불편해서 귀찮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II-26> 현재 성생활 욕구 정도

현재 성생활 욕구 정도	빈도(명)	백분율(%)
성적 욕구가 없다.	172	57.7
정신적으로 교체하고 싶다.	39	13.1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다.	41	13.8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	36	12.1
기타	13	4.3
계	301	100.0

7) 성적욕구 해결방법

성적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고 넘기기가 24.6%로 가장 높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가 15.7%, 성행위를 한다 가 11.4%, 자위행위를 한다가 6.4%로 나타나

른 일을 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로 남편과 신체접촉을 한다 라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III-27> 성적욕구 해결방법

성적욕구 해결방법	빈도 (명)	백분율 (%)
성행위	32	11.4
자위행위	28	9.3
다른 일에 몰두	44	15.7
참고 넘기기	69	24.6
성적 욕구가 없다.	108	38.4
기타	20	6.6
계	301	100.0

8) 최근 한 달간 잠자리 경험

조사대상자의 최근 한 달간 잠자리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없다가 68.4%(206명)로 있다 32.0%(9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최근 한 달간 잠자리 경험

최근 한달간 잠자리 경험	빈도 (명)	백분율 (%)
있다.	95	32.0
없다.	206	68.4
계	301	100.0

9) 잠자리 대상

최근 한 달간 잠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대상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배우자가 79.6%(74명)로 가장 많았고, 이성친구가 17.2%(1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로 표시한 조사대상자는 결혼상대자, 동거가 있었다.

<표 III-29> 잠자리 대상

잠자리 대상	빈도 (명)	백분율 (%)
이성친구	16	17.2
배우자	74	79.6
기타	5	3.2
계	95	100.0

10) 잠자리 이유

최근 한달 사이에 안에 성관계 경험이 있고, 그 대상자가 이성친구라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고독하기 때문에 73.3%(1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로 좋아서 13.3%(2명), 본능이니까, 어쩌다보니 각각 6.7%(1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잠자리 가진 이유

잠자리를 가진 이유	빈도 (명)	백분율 (%)
본능이니까	21	22.1
고독하므로	43	45.3
서로 좋아서	20	21.1
어쩌다보니	11	11.5
계	95	100.0

11)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기능이 약화되어서가 16.9.1%(5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점잖치 못한 것 같다가 15.9%(48명), 건강상 문제 때문인가 9.6%

<표 III-31>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	빈도 (명)	백분율 (%)
창피하다.	27	8.9
건강을 해칠 것 같다.	32	10.6
실패할까 두렵다.	13	4.3
즐겁지 않다.	24	7.9
점잖치 못한 것 같다.	48	15.9
도덕적 갈등 때문에	12	3.9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21	6.9
돈이 없어서	3	0.9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1	0.3
건강상 문제 때문에	29	9.6
노인의 성을 사회적으로 천시해서	4	1.3
생활의 변화가 싫어서	10	3.3
성관련 상담기관이 없어서	1	0.3
성기능이 약화되서	51	16.9
기타	25	8.3
계	301	100.0

(29명), 즐겁지 않다가 7.9%(24명),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6.9%(21명), 생활의 변화가 싫어서가 3.35%(10명), 창피하다 8.9%(27명)와 건강을 해칠 것 같다가 각 10.6%(32명), 실패할까 두렵다 4.3%(13명)와 돈이 없어서가 각 0.9%(3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성기능 약화가 16.9%(51명)로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한 점을 알 수 있다.

12) 성교육, 상담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성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다가 36.0%(107명), 필요하다가 33.7%(100명), 잘 모르겠다가 29.6%(88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III-32> 성교육, 상담의 필요성

성교육, 상담의 필요성	빈도 (명)	백분율 (%)
필요하다.	100	33.7
필요하지 않다.	107	36.0
잘 모르겠다.	88	29.6
기타	6	1.9
계	301	100.0

(1) 성교육, 상담의 종류

조사대상자의 성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 하는지를 살펴보면, 건강과 성생활 연관성 교육이 69.1%(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녀 노인의 심리적 차이가 17.0%(16명), 이성친구 사귀기가 8.5%(8명), 성관계 보조기구에 대한 이해가 2.3%(7명)로 나타났다.

<표 III-33> 성교육 상담의 종류

성교육 상담의 종류	빈도 (명)	백분율 (%)
건강과 성생활 연관성 교육	65	69.1
남녀노인의 심리적 차이	16	17.0
이성 친구 사귀기	8	8.5
성관계 보조기구에 대한 이해	7	2.3
기타	4	4.3
계	100	100.0

(2) 교육 참여 유무

성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고 85.2%(69명)로 참여하지 않겠다 8.6%(7명)와 생각해 보겠다 6.2%(5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교육참여 유무

교육참여 유무	빈도 (명)	백분율 (%)
참여하겠다.	69	85.2
참여하지 않겠다.	7	8.6
생각해 보겠다.	5	6.2
계	81	100.0

이상에서 살펴본 연의 내용은 선행조사에서 보여주는 결과 같이 여성 노인은 분명한 성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주변인물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그저 아이를 키워주는 존재 혹은 은퇴하여 쉬는 산업사회 역전의 용사로 남는 경향이 높다(성남여성의 전화, 2003). 여성노인의 친구관계,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 성윤활제 사용과 일상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최인숙, 200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인 성의식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주하는 여성 노인 301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노인의 경우 성적인 소외와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홀로된 노인 맺어주기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성적인 욕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성생활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특성을 활용하

여 성생활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성 노인의 건강과 연관된 성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초·중·고·대학에서 노인의 성을 포함하는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비노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를 조사연구를 통해 흔히 생각하는 여성노인의 성적인 주체성과 관련된 요구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여성노인의 건강권과 더불어 질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및 가정과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노인 대상의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둔 직장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 유아에서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정자, 여성노인의 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2002.
2. 보건복지부,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방안, 2003.
3. 서울YMCA, 여성 노인의 사회 심리적 자립을 위한 자기성찰, 서울YMCA, 2003.
4.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노인의 성의식 실태 조사 및 성교육모델개발의 의의, 성남여성의 전화, 2003.
5. 여성부,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정책수립방안 연구, 2002, 여성부.
6. 장영란 외,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 여성개발원, 2002.
7. 최선화, 노인상담과 주거보호, 현학사, 2004.
8. 최성일·장인협, 노인복지학,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방안, 보건복지부, 2003.